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나와 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인간과 윤리 사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상가가 이 질문을 고민해 왔고, 오늘날에도 ‘인간 존재의 특성’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다.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선, 인간은 고도의 사고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며 조정한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 가는 서사적 존재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려면 자신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매킨타이어가 대표적 사상가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 무형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이며,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적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언어나 제도뿐 아니라 지식, 가치, 삶의 양식 등 인간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 나가는 **문화적 존재**이다.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는 점에 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러한 윤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선(善)을 파악하는 능력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이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마음 읽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음 읽기 능력은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을 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준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격을 갖출 수 있고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윤리적 삶을 지향할 때 비로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리적 삶을 지향하면서 인간다움을 실현해 나갈 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인간 본성에 대한 대표적 관점인 **성선설(性善說)**, **성악설(性惡說)**, **성무**

**선악설(性無善惡說)**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한 도덕심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제어하고 교화할 것을 강조한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교육 등 후천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며 그에 따른 인간다움의 실현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모두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펼쳐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뇌 과학이나 심리학 등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욕구 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역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보다 인간답고 바람직한 삶,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면, 어떠한 관점 탐구와 성찰 인간과 동물의 차이이든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리성이 인간 본질의 핵심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 없이 성찰하고 노력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다.

**윤리 사상**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답으로서, 바람직하고 좋은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때 윤리 사상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우리가 자아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논의를 전개한 윤리 사상들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삶의 목적 및 가치 체계를 제공**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일정한

가치 체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존재이다. 올바른 삶의 가치와 최선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탄생한 다양한 윤리 사상은 삶을 이끌어 주는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강조한 ‘인간다움 [仁]의 실현’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 등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윤리 사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도덕적 행동 지침 및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던 칸트의 윤리 사상을 행동의 지침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 등 세분화된 윤리 사상은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직면하게 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윤리 사상의 도움을 받으며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자기 나름의 답을 해 볼 수 있다. 또 이를 자신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사회사상**은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사회 체제나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및 그것의 구현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회사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사상은 모든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인 **이상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사회사상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유, 평등, 정의, 행복 등을 보장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다.

둘째, 사회사상은 **현 사회의 진단과 평가**에 도움을 준다. 사회사상은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시민의 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는 사회사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과 체계적인 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공적 삶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윤리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빈부격차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까? 혹시 부자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까? 혹시 부자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할까? 사회사상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인종을 차별하는 인도인 등록 법령에 대해 불복종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나는 인도의 한 시민으로서, 또한 양심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폭력을 통해 정의(正義)를 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처벌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중죄인이 되어 명예를 얻고자 할 것이다.

- ①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 ② 유희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존재이다.
- ④ 올바른 신념을 실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초월적 신을 믿음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존재이다.

### 2.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놀이하는 것이다. 놀이가 동물에게 식욕과 성욕 등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라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이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삶을 재충전한다. 따라서 놀이는 단순히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 ① 우주 만물의 순리에 따른 운명적 삶을 지향한다.
- ② 자연을 이용하여 불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한다.
- ③ 초월자에게 귀의하여 내세의 평안한 삶을 도모한다.
- ④ 다양한 유희적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 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반성하는 삶을 실천한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비는 자신을 넘어 사회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ㄴ.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ㄷ.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ㄹ.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옛 성현은 매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사귀어 있어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가르침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이다.
- ② 반성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존재이다.
- ④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 귀의(歸依)하는 존재이다.

2.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동양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 중심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농경은 집단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가족을 기초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족 간의 윤리에 주목하였다.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의 윤리를 정립하려는 논의도 전개하였다. 또한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한 **유교 윤리, 불교 윤리, 도가, 도교 윤리**는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이자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삼교(三敎)라고 불리는 유, 불, 도 사상은 각기 구별되는 윤리 사상을 제시하며 동양의 사유 체계를 이끌었다. 특히 이들 사상은 각각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질서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자(孔子)로부터 비롯된 유교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해 인간이 지닌 도덕성에 주목하였으며,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교에서 인간은 위로는 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수양을 통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된 불교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을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자비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불교의 관점에서 불 때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는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을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비의 윤리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노자와 장자가 체계화한 도가는 우주의 근원을 **도(道)**로 규정하고,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무위자연의 삶**을 제시하였다. 도가에서 바라본 인간은 소박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인위적 가치와 제도는 인간 본래의 본성을 흐린다. 그래서 도가는 자연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소규모의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도가 윤리 사상은 이후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도교 윤리 사상으로 전개되었으며, 도가, 도교의 윤리 사상은 일반 민중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동양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유, 불, 도로 대표되는 동양 윤리 사상은 각각의 고유한 사유 체계를 제시하며 전개되었다. 그러면 동양 윤리 사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동양 윤리 사상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도

가, 도교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다.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 도가, 도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소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동양 윤리 사상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행복과 사회 질서의 실현 원리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에도 현재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지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 윤리 사상은 우리가 수천 년간 형성해 온 고유한 사유 체계이자 역사적 전환기마다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이룩한 지적, 윤리적 자산이다.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와 무속(巫俗) 신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윤리 의식의 바탕이 되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숭배 [敬天] 사상과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天人合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는 하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하늘을 비롯한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생각은 무속 신앙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무속 신앙은 하늘과 인간을 매개한다고 믿어지는 무당의 힘을 빌려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믿음으로, 고대인들의 사유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굿을 통해 하늘의 도움을 얻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었다. 또한 집단 굿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울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은 서로 사랑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었으며, 이는 유, 불, 도 삼교로 대표되는 외래 사상을 우리 땅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에서 한국 윤리 사상과 관련한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사유 방식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유 방식은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을까?

먼저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기를,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였다. 무속 신앙은 개인의 안녕과 인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본주의 정신은 이후 인간을 존중하고 존엄히 여기는 사상으로 계승, 발전하였으며, 이는 한국 유교의 민본주의,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홍익인간의 정신,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한 무속 신앙 등은 사람들의 좋은 삶을 염원한 현세 지향적 가치관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세

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민간 신앙으로 계승되었다. 도덕적인 인간과 사회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한국 유교의 전통에서도 현세 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들 수 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환웅과 용녀의 결합, 하늘과 인간의 합일을 염원하는 무속 신앙은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화합과 조화의 정신은 불교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화해시키고자 했던 원효의 사상, 교종과 선종의 화해를 주도한 의천과 지눌의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한국 유교는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화합과 조화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동학을 비롯한 근대 신학 종교들도 유, 불, 도 사상을 융합하여 조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도덕적 삶의 강조**를 들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평화 애호 정신, 그리고 유, 불, 도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실현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던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은 도덕적 삶에 대한 염원을 보여 준다. 특히 한국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삶과 관련하여 인격의 완성을 위한 방안을 깊이 탐구하였다.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던 유교 사상의 전통,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한 한국 불교 사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윤리 사상의 전통적 특징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큰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 욕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환경 문제 등은 화합과 조화의 정신, 도덕적 삶의 강조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윤리 사상을 통해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도모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5.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서(醫書)에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을 ‘몸이 불인(不仁)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손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인일 것이다.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천지는 한 몸이고 천지 사이의 만물은 자신의 몸과 같다. 무릇 사람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 ①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 ② 의술(醫術)을 행하여 자기 몸의 건강을 보전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사회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를 강조한다.
- ④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고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다.
- ⑤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

6. 다음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하늘이 명령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

- ① 예의(禮義)로써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② 존비친소의 구분 없이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 ③ 집착에서 벗어나 중생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 ④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 ⑤ 외물(外物)에 의지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3. 인의 윤리

중국 고대 왕조인 주(周) 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기존의 사회 제도가 무너지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제자백가(諸子百家)이다. 대표적으로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등을 들 수 있다.

유교 사상은 공자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는 중국의 상고 시대에 해당하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하여 유교 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공자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당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도덕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仁)은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한 인은 사랑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공자는 인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효제(孝悌)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忠恕)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서’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推己及人)이다.

공자는 인(仁)과 더불어 예(禮)를 강조하였다. 인이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예는 외면적 규범을 의미한다. 공자는 당시의 예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보고, 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을 군자(君子)라고 일컬었다. 또한 인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의 회복은 무엇보다 개인의 주체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한편 공자는 정명(正名)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정명은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통치자는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유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춘추 시대를 지나 전국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맹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적인 이익의 추구와 같은 도덕적 타락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파악하였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仁)과 의(義)를 강조하였다. ‘인’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면

‘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말한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선한 마음 [不哀之心]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惻隱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羞惡之心],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辭讓之心],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 [是非之心] 등의 네 가지 마음, 즉 **사단(四端)**이 그것이다. 그는 사단이 선천적임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도덕적 마음인 사단은 어린썩과 같은 실마리, 곧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良知)**와 선천적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良能)**을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르며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맹자는 수양을 통해 사단을 확충할 때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四德)**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고 [求放心] 욕심을 적게 가질 것 [寡欲]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집의(集義)**를 통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울긋불긋한 도덕적 기개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호연기기를 갖출 때 **대장부(大丈夫)** 또는 **대인(大人)**이라 하는 이상적 인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정치도 도덕적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인’에 기초한 **왕도(王道)**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패도(霸道)**를 비판하고, 백성을 저버린 군주는 교체되어야 한다 [易姓革命]는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는 백성들이 도덕적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되던 전국 시대 말에 이르러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도덕의 근원을 하늘과 결부하여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순자는 자연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 [天人分二]는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툼과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자는 성인(聖人)에 의해 제정된 **인위(人爲)**로서의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化性起僞]고 주장하였다. 순자에게 있어서 ‘예’란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규제하는 외면적인 도덕 규범을 뜻한다.

순자는 예를 도덕규범의 근거이자 통치의 표준으로 삼고자 하여, 예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또한 덕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야 하며,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순자는 군주의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규범인 ‘예’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 맹자, 순자 등 선진(先秦) 유교 윤리 사상가들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유교 사상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인간성 상실과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가는 데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법가(法家)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분서갱유를 통해 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을 통제하여 유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漢)나라에 이르러 유학은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다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의 유학은 경전을 체계화하는 **경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경전의 해석과 관련하여 **훈교학**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도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학은 다시 침체에 접어들었다.

유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는 송(宋)대에 이르러 마련되었다. 당시 유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불교와 도가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정립하였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성즉리’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우주 자연의 이치와 연결지어 규정한 것으로, 성즉리에 대한 강조는 도덕 실천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주희는 이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을 통해 도덕 행위의 근거와 원리를 탐구하고, 수양론(修養論)과 경세론(經世論)을 통해 도덕 법칙의 실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이기론**은 우주 만물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희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며, ‘기’는 ‘이’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이다. 주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理氣不相離]고 보았다. 동시에 원리로서의 이와 재료로서의 기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므로 서로 뒤섞일 수 없다 [理氣不相雜]고 보았다.

**심성론**은 도덕 행위의 근거와 실천 이론을 해명한 것으로 주희는 이기론을 그 근거로 삼았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래부터 그러한 성품, 즉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칭하면서,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주희에 따르면 만물이 ‘이’와 ‘기’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도 현실에

서 변화하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기질지성(氣質之性)**이다. 이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우리 성의 다른 두 측면일 뿐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질지성은 선악이 혼재하므로, 도덕적으로 행위하려면 기질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과 욕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주장이다.

**수양론**은 도덕 실천의 구체적 방안을 논한 것이다. 심성론을 바탕으로 감정과 욕구의 조절을 강조하였던 주희는 ‘우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덕 본성을 잘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것 [存天理去人欲]’을 강조하였다. 또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갈 것 [格物致知], 양심을 보존하여 본성을 함양하고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필 것 [存養省察], 항상 마음을 경건하게 할 것 [居敬] 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주희는 도덕 법칙의 탐구와 더불어 도덕 실천이 중요함을 주장하면서, 지(知)와 행(行)이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해 나아간다는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제시하였다.

**경세론**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주희는 개인의 도덕 실천을 바탕으로 도덕적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의 유교 전통을 계승하여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이념 아래 **덕치(德治)**와 **예치(禮治)**를 구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부패한 현실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의 도덕성과 바른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명(明)대에 이르러 왕수인은 욕구연의 심학(心學)을 계승하여 **양명학(陽明學)**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도덕 원리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 [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덕 법칙은 마음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함으로써만 드러난다고 보고 도덕 주체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보아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왕수인은 이처럼 우리 마음에 이미 도덕 법칙이 내재하며, 이는 곧 도덕 판단과 실천의 근거임을 강조하면서, **치양지(致良知)**를 주장하였다. 치양지는 마음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양지(良知)**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서,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양지를 강조하였던 왕수인의 입장은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희가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격물치지를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왕수인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자기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을 격물치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왕수인은 양지를 실현하는 데 사사로운 욕망이 방해가 된다고 보고, 사욕을 극복하여 순진한 마음을 유지 [存支理去父欲]한다면 누구나 지선(至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왕수인은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

성이다.”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앎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희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은 선진(先秦)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자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성리학과 양명학은 도덕의 근거가 어디에 존재하며 그 탐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달랐으나, 도덕 법칙에 대한 앎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와 같은 실천 지향의 태도는 오늘날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仁)이란 무엇일까요? 인은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모두 어질게 될 것이니, 인의 실천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
-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고 한다네. 반면 배울 수 있고 애쓰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僞]라고 하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性僞之分]이라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리라네. …(후략).

- ①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 [求放心]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齊物] 한다.

9.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예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자포(自暴)] 자이고, 자신이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자기(自棄)] 자이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지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을 :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성품[性]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이익이 의로움을 이기면 난세가 되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누었다. 사(士) 이상의 계층이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백성과 생업을 경쟁하지 않으니, 백성이 재물에 궁핍하지 않게 되었다.

- < 보 기 > —
- ㄱ. 갑은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 ㄴ. 갑은 인의가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ㄷ. 을은 군주가 예로 다스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을은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나의 앎을 다하고자 함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치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야 한다.

을 : 만약 ‘격물’을 ‘천하 만물 모두를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천하의 만물을 어떻게 다 연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초목에 대하여 연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격’은 ‘바로잡는다[正]’의 뜻으로, ‘물’은 ‘일[事]’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 ① 갑 :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 ② 갑 :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물[事]도 없다.
- ④ 을 :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다.
- ⑤ 갑, 을 :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해야 이상적 인간이 된다.

11.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위로는 무극과 태극에서, 아래로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理)가 있다. 사물 하나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 한 가지를 빠뜨린다. 모름지기 한 가지를 따라가서 다른 이(理)와 만나야 한다.

을 :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心]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뜻[意]이다. 뜻의 본체가 곧 앎[知]이며, 뜻이 머무는 것이 곧 사물[物]이다. 만약 뜻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사물이니, 그것은 마음에 있다.

- ① 갑은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도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기(氣)로 이루어진 본연지성을 이(理)가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마음 밖에 사물이 있으므로 이(理)도 마음 밖에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과 예의로 양지(良知)를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마음[心]과 이치[理]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마음이요, 실체적인 것은 성(性)이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곧 깨닫고 느끼는 주체이다.

을 : 마음의 본체[體]는 성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치가 있겠으며, 이치 바깥에 마음이 있겠는가?

- < 보 기 > —
- ㄱ.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ㄴ. 성(性)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ㄷ.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
  - ㄹ. 격물치지는 천리의 보존[存天理]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도덕적 심성

삼국 시대에 유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교의 도덕규범을 받아들였고, 유교의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원(元) 나라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여 자연과 인간을 탐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건국된 조선에서 성리학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기 수양과 사회적 실천에 더욱 주목하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성리학은 **사단 칠정(四端七情)**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과 감정 및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는 **심성론(心性論)**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황과 이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황**은 세계와 인간 심성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을 기초로 도덕 본성의 실제 및 발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황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理)**와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주희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理氣不相離] 동시에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理氣不相雜]고 하였다. 이황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와 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입장에 주목하면서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황은 가치론의 입장에서 '기'보다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를 기보다 우위에 두는 이귀기천(理貴氣賤)의 입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황은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서 순선무악(純善無惡)하다. 반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서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악(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氣發而理乘之]."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정립하였다.

이황이 '이'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에게는 도덕 행위의 근거인 도덕 본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 발현도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새싹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선한 도덕 본성인 '이'의 발현은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상의 확립과 사회 질서의 수립은 도덕 본성의 능동적 실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황은 도덕 본성의 실현과 관련한 수양의 태도로 일종의 도덕적 긴장 상태를 가리키는 **경(敬)**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主一無適],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整齊嚴肅], 항시 또렷이 깨어 있는 것 [常惺惺] 등을 강조하였다. '경'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막고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황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이이**도 인간의

도덕 본성과 도덕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다. 그는 도덕 실천과 관련하여 일반 감정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이황과 구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理氣不相離]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발(發)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는 까닭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다."라는 그의 주장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理通] 반면,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받아 국한된다 [氣局]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통기국을 바탕으로 선의 원리인 '이'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기'는 국한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에 따라 사단 칠정에 대하여 이황과는 구분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을 가리킨다. 또한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 [氣發理乘]'이다. 그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이며, '이'는 기가 발하는 근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이는 이처럼 '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기'의 발동만을 인정함으로써, 칠정이라는 인간의 일반 감정이 도덕 본성에 근거함을 주장하였다. 또 악(惡)의 발생과 같은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을 기의 영역에 한정 짓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의 실현은 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 감정의 조절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이는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교기질(橋氣質)**의 수양론을 제시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기질을 바로잡는 일의 핵심은 **극기(完己)**에 있다. 극기는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가 맑고 깨끗해져서 '이'의 본래 모습, 즉 선한 도덕 본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이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운 욕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진실한 '이(理)'이자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의 자세를 몸가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말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 마음을 삼가 바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한편, 이이는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질에 힘써야 한다는 **무실**과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개혁론인 **경장**을 주장하였다. 당시를 위기로 규정한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덕과 더불어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훗날 실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 이후 조선 사회는 혼란이 거듭되었다. 유학자들은 예(禮)의 강화를 통해 혼란한 질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당시 사변화된

성리학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실천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실학(實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적 모색이었다. 성리학이 대체로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집중하였다면, 실학자들은 현실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민생의 구제와 국부의 증대를 목표로 사회 개혁론에 주목하고 위정자를 비롯한 지배 계급의 윤리적 건전성 회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실학은 성리학과는 다소 구별되는 인간관과 윤리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정약용의 사상이다. **정약용**은 조선 성리학의 주된 주제였던 도덕 본성 및 실천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성리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실학이 체계화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우주 자연의 원리, 즉 이(理)이다. 즉 이는 우주 자연의 원리이자 궁극적 실체이며, 동시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법적(理法的) 실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성즉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이법적 실체로서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적 입장 대신 인간의 본성은 일종의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性嗜好]**라는 주장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고자 하였다. 그가 말하는 기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형구(形求)의 기호**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기호와, 비록 선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생리적 기호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약용은 인간을 선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즉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과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을 따르기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고, 악을 따르기란 언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쉽다."라는 말로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성리학의 엄격한 금욕주의적 수양론에서 벗어나 욕구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생존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하고, 평등하게 욕구를 발현하여 충족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인간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정약용의 사상은 근대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13.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가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자 :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사단과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사단을 겸(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修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승 : 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立志]하네. 그 다음은 수렴(收斂)인데, 이것의 핵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敬)을 지니는 것이라네. 수렴 다음에는 공리(窮理)와 성실(誠實)에 힘쓰고 기질을 바로잡아야[矯氣質]하네.

< 보 기 >

- ㄱ.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 ㄴ.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矯]하는가?
- ㄷ. 경을 지니는 것[持敬]은 공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ㄹ.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성(誠)에 이를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린은 선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선한 것이 공(功)이 되지 않고, 승냥이는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自主之權]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간과한다.
- ②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가 아닌 예의 시작[始]임을 간과한다.
- ③ 거경(居敬)의 실천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사단(四端)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이 하늘[天]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음을 간과한다.

[13~14].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다. 갑을 속에 다름이 있으니,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칠정은 기(氣)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을 : 사단은 기가 발(發)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아이기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氣發)이며, 측은의 본(本)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승(理乘)이다.

13.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사단의 정(情)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  
 ㄴ.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理)인가?  
 ㄷ.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 정인가?  
 ㄹ.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말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緒]임을 모르고 있다.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15~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邊)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반드시 기(氣)의 기를 타야 움직이는[動] 것이니,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理)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을 :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兼)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5.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것임을 모르고 있다.  
 ㄴ.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ㄹ.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갑, 을과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심(四心)이 바로 사단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측은(惻隱)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仁)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 ① 사덕은 천리가 아니며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인가?  
 ③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性]에 내재하는 선한 것인가?  
 ④ 사단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心]이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⑤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 5. 자비의 윤리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는 전통의 브라만교가 그 권위를 상실해 가는 가운데, 육사외도와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싯다르타는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며 불교를 창시하였다.

싯다르타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한 이후 6년여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佛K, Buddha), 즉 석가모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펼치기 위해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불교는 교조인 부처[佛], 그가 깨닫고 설법한 진리[法], 출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행 공동체[僧]를 갖춘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연기설(緣起說), 사성제(四聖諦), 삼법인(三法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기설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연기란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因]과 조건[緣]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연기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본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인생과 우주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연기설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멸하는 길을 밝힌 것으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고성제(苦聖諦)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판단이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고통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집성제(集聖諦)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을 겪는다고 본다.

멸성제(滅聖諦)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인 열반의 경지, 즉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 관한 진리이다.

도성제(道聖諦)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밝힌 진리이다.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의 또 다른 가르침인 삼법인은 '세 가지의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며, 열반적정 대신 일체개고(一切皆苦)를 꼽기도 한다.

제행무상은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법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른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며, 자아[我]역

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열반적정은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일체개고는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집착함으로써 탐욕[食],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에 빠져 고통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 정, 혜, 삼학을 제시하였으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겨 모든 사람에게 자비(慈悲)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그의 가르침은 한동안 제자들에게 의해 구두로 전승되었다. 이후 경전 편찬을 통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불교가 부파불교(部派佛敎)이다.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파 불교의 특징은 부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아라한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파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교리를 강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대승 불교(大乘佛敎)이다.

대승 불교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菩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방안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대승 불교의 교리는 공(空)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공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철저히 논한 중관(中觀) 사상과 이를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唯識) 사상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양 측면에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관 사상은 공 사상을 확립한 용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용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 즉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실체라 믿는 것들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은 고정불변하는 유(有)나 아무것도 없는 무(無)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中道)를 강조하였다. 중관 사상에서는 이러한 용수의 사상에 따라 중도를 잘 관찰하는 일 즉 중관(中觀)을 중시하였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식 사상은 공 사상이 지나치게 공허한 사상으로 치우쳐 간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유식 사상도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중관 사상과 달리, 유식 사상은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推識)을 강조하고,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 어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推心造)를 주장하였다. 유식 사상은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이는 교종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불교는 대승 불교의 이론적 체계가 구축되면서 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인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이론에 치우치면서 대중과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불교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전파되어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를 그들에게 친숙한 도가 사상의 개념을 빌려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불교 이해 방법을 격의 불교(格義佛敎)라고 한다.

이후 중국 불교는 다양한 불경 번역을 통해 격의 불교에서 벗어나 불교를 새롭게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한 경전의 이론에 입각한 여러 종파가 형성되었는데, 이처럼 경전의 교리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 종파를 교종(敎宗)이라고 한다. 교종의 대표적 종파로는 천태종과 화엄종을 들 수 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에 해당하는 교(敎)와 실천에 해당하는 관(觀)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는 교관이문(敎觀二門)을 주장하였다.

화엄종은 『화엄경』에 의거하여 우주 만물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된다고 보는 무진연기(無盡緣起)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든 것은 서로 차별함 없이 하나이며, 분별과 대립은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종은 이처럼 경전 이해에 기초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위한 실천 수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정도종은 엄밀하지만 하면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교종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그 해석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면, 선종(禪宗)은 부처의 마음에 주목하고 그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종은 인도 불교에서 기원하였으나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혜능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선종에서는 불교의 진리, 곧 법(法)이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는 것[以心傳心]이므로, 따로 언어와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 데[不立文字]에 참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교설 이외에 따로 전하는 것[敎外別傳], 즉 부처의

마음이 있으니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心性)을 도야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선종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見性成佛], 자신의 마음속의 불성(佛性)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見性成佛]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선종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본성을 보면 어떠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즉각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돈오(頓悟)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종에서는 불성에 대한 직관을 중시하였기에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즉 선(禪)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좌선을 주요한 수행 방법으로 하면서 화두를 통해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다.

1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 < 보 기 > —

ㄱ.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ㄴ. 멸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ㄷ.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ㄹ.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 < 보 기 > —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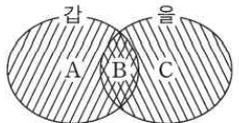
- < 보 기 >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마음의 바탕[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自性)의 계(戒)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定)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혜(慧)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頓悟] 문득 닦으면[頓修] 늦고 더됨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을: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 하나는 그 이(理)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

(나)  (법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 보 기 >
- ㄱ. A : 오온(五蘊)으로 이뤄진 '나'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 ㄴ. B :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ㄷ. B :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한다.
  - ㄹ. C :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苦],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道]을 말한다.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하고 참고 견디어 바른 생각과 바른 앎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① 욕망을 충족시켜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 ②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③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 ④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 ⑤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2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색(色)은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으니라.

- 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 고통 없는 경지[涅槃]로 나아가야 한다.
- ②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③ 고통을 없애려면 여덟 가지 수행 방법[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오온(五蘊)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연기(緣起)를 바르게 통찰하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6. 분쟁과 화합

한국 불교의 독자성은 원효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특정한 경전을 중심으로 다른 경전과 사상을 해석하는 중국 불교와 달리, 원효는 다양한 경전과 부처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전개하였다.

원효는 일체의 모든 이론은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론은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원효는 일심을 일체의 대립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면서, 일심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론이 생기지만, 이는 다시 일심으로 종합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일심에 바탕을 둔 원효의 사상은 다양한 이론과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색과 남색이 다르지만 그 바탕으로 보아서는 같으며, 얼음과 물은 그 형태로 보아 다르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종파의 주장은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므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으로 정립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논쟁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던 화쟁(和靜) 사상이다. 이는 당시 여럿으로 분화되어 대립 양상을 보이던 불교 이론과 종파를 통합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효는 독자적인 불교 이론의 제시와 더불어 실천적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다. 그는 표주박에 ‘겉핥지 않다.’라는 뜻의 무애(無碍)를 새기고 전국을 다니며, 불경을 읽지 못해도 염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는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일심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였던 자비의 실천이 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왕실 중심의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 신라 말에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교종과 더불어 선종이 함께 발전하였다. 선종은 깨달음은 경전의 이론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한다. 선종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종이 경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하였고,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의 마음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은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고려 초기부터 있었으며, 의천에 의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의천은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조화를 강조한 원효의 화쟁(和靜)을 높이 평가하고 계승하였다.

그는 교종을 주(主)로 하고 선종을 종(從)으로 하는 입장에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내외겸전(內外兼全)과 교관겸수(敎觀兼修)를 강조하였다. 내외겸전은 교종의 수양 방법과 선종의 수양 방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관겸수는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 후기에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선종과 교종에서 제시하는 궁극의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지눌은 돈오점수(頓語燕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의 합일을 꾀하였다.

돈오점수는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가는 수행법으로, ‘돈오’는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나’를 보는 것이 돈오이다. 하지만 돈오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혜쌍수는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지눌은 ‘정’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혼란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혜’는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보아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은 마음의 본체를, ‘혜’는 마음의 인식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종과 선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려 하였던 의천과 지눌의 사상은 이후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3.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써 비추어 보아 법의 모습[法相]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 을 :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 < 보 기 > —
- ㄱ. 갑 : 단박에 깨닫기 위해 선(禪) 수행과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 ㄴ. 을 : 참선(參禪) 수행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보살행이 필요 없다.
  - ㄷ. 을 :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수심(修心)의 방법이다.
  - ㄹ. 갑, 을 :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더라도[頓悟]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갓난 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기관[諸根]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근력을 충실하게 키워 내지 못하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 < 보 기 >
- ㄱ.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 ㄴ. 선종[禪]과 교종[敎]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동일하다.
  -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漸修] 나가야 한다.
  - ㄹ.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있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삼매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무념이다. 자성을 일거에 깨쳐야 한다.

을 :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진다. 정(定)이 없으면 미치광이요, 혜(慧)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부처가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갑은 경전 연구에 몰입해야 반야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여 교학(敎學)에도 힘써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점차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무위자연의 윤리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사상 가운데 유교 사상과 더불어 영향력이 큰 사상 중 하나는 **도가(道家)** 사상이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유교 사상이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에 주목하였던 것에 비해, 도가 사상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생명 보존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도가 사상은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의해 구체화되어 발전하였기에 **노장사상(老莊思想)**이라고도 한다.

**노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 사회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인간은 본래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가지고 있으나,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도(道)**에 따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으로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어로 한정할 수 없고 실상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노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천지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고 보았다.

노자는 미추(美醜)나 선악(善惡)과 같은 현실의 가치는 "도에서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자는 이 세상에는 오직 상대적인 가치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자는 도(道)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덕(德)**이라고 하였다. 그는 **무위(無爲)**의 덕을 따르는 것,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무위는 인위(人爲)를 가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위자연의 삶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뜻한다. 노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살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고, 이를 **성인(聖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노자는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허정(虛靜)**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허정은 마음에 내재한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비워 낸 본래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노자는 마치 더러워진 거울의 때를 닦는 것과 같이 무위와 무욕(無欲)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정치에 있어서도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을 통해 백성들의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이자 백성들의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실현하는 정치이다. 그는 이러한 다스림이 실현된 이상 사회로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소국파민(小國寡民)을 제시하고,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통일 제국에 반대하였다.

**장자**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서만 얻은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감각과 마음을 통해 얻는 지식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는 편

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가 제시한 도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 만물 어디에나 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미나 쪽정 이, 기왓장 속에도 도가 있고, 심지어 오물 더미에도 도가 깃 들어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만물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깨우치고, 자유롭게 평화로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 수 있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경지로 **제물(濟物)**과 **소요(通達)**를 제시하였다.

제물이란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제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善惡), 미추(美醜), 빈부(貧富)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

소요는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의미로,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소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아간다.

장자는 제물과 소요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제시하였다.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심재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이다.

장자가 제시한 제물과 소요의 경지는 도(道)를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로서, 장자는 이러한 경지에 오른 이상적인 인간을 일컬어 **성인(聖人)**, **지인(至人)**, **진인(真人)**, **천인(天人)**, **신인(神人)** 등으로 칭하였다.

**도교(道敎)**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과 결합하여 성립한 종교이다. 도교는 도가 사상 가운데 종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주요한 교리 체계를 구성하였다.

도가와 도교는 모두 우주 자연의 근원으로서의 도를 중심으로 그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도가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철학적 사상이었던 반면, 도교는 교단과 교리 체계를 갖추고 현세적인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면서 불로장생(不老長生)과 신선술을 믿는 종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는 한(漢)대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한나라 초기에는 **황로학파(黃老學派)**가 등장하였다.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숭상한 황로학파는 도가를 바탕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의 사상을 수용하였고, 무위(無爲)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하였다.

한나라 말기에는 황로학파와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태평도(太平道)**가 등장하였다. 태평도는 교단을 갖추고 만인이 부유하고 영화로운 태평(太平)시대를 현실 사회에 실현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하였다. 태평도는 복을 추구하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으나,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이후 교단이 몰락하고 말았다.

이후 등장한 **오두미교(五斗米敎)**는 조직화된 종교 집단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두미교는 노자를 신격화하여 교조로 받들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았다. 오두미교에서는 교리를 믿고 규정된 규율과 의식을 따르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여 민간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도가 사상을 계승하여 종교로 발전시킨 태평도나 오두미교와 달리, 위진(魏晉)시대의 **현학자(玄學者)**들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다. 대표적인 현학자들을 흔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 부른다. 이들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청담(淸談) 사상**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는 도가,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삼국 시대부터 이미 도가, 도교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의 사상이 최치원은 「난랑비서문」에서 우리 고유의 사상인 풍류 사상에 이미 도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서 신선 사상과 같은 도교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학을 탄 신선의 모습이나,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 등을 통해서 이러한 도교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고유 사상에 깃든 도가, 도교적 요소는 중국으로부터 도가, 도교 사상이 전래된 이후 우리 땅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기존의 사상과 융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도교는 삼국 시대에는 주로 민간 신앙으로 나타났으나, 고려에 이르러서는 국가 의식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성행하여 종교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제초(制草)**라는 도교 제례가 중시되었는데, 제초는 삼국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조선 시대 초까지 명맥이 이어졌다. 제초를 통해 시행된 도교를 흔히 **과의(科儀)도교**라고 한다.

과의 도교와 함께 신선 사상에 기초한 양생술도 수용되었다. 신선 사상의 영향에 따른 수련의 전통도 일찍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전통은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허준의 『동의보감』도 도교의 양생술에 영향을 받은 의학서이다.

이와 더불어 도가, 도교 사상은 우리 고유의 민간 신앙과 다양하게 융합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민간 신앙의 대상인 성황, 칠성, 조왕 등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성황당은 우리 고유의 산신(山神) 신앙과 도교의 성황 신앙이 결합한 것이다. 자연의 기운을 통해 복을 기원하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 또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민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도가•도교 사상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 고유 사상과 결합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6. 갑은 중국 불교 사상이, 을은 한국 불교 사상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숨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 < 보 기 >
- ㄱ.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오(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ㄴ.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 ㄷ.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 ㄹ.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慎獨)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p>1 스승님께서 물이 도(道)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p> 	<p>2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네.</p> 
<p>3 물은 너무나 유약하지 않습니까?</p> 	<p>4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라네. 물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p> 

-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④ 만물에 이로우며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8.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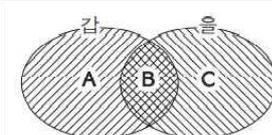
갑 :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 < 보 기 >
-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9.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가)</p> <p>갑 : 곱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짚아내는 것이고, 노곤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p> <p>을 :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른 후에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p>	<p>(나)</p>  <p style="text-align: right;">&lt;범례&gt;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p>
--	--

- ① A :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 ② A :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③ B :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C :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 ⑤ C : 항상(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30.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그림쇠는 동그라미, 굽자는 네모꼴, 떡줄은 곧음,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듯 예(禮)란 올바른 도(道)의 기준이다. 군자는 스승과 법도[師法]를 따르고 예의를 실천하는 자이며 소인은 본성을 좇아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이다.

을 :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쇠, 네모꼴을 만드는 굽자, 직선을 긋는 떡줄을 빌어 사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해친다. 예약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仁義)를 좇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한다.

- ① 갑 : 예를 기준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② 갑 :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을 : 인의를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④ 을 :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본성을 해치는 예약을 거부해야 한다.
- ⑤ 갑, 을 : 성(性)을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樸]로 보아야 한다.

31.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樹木)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자연의 도(道)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을 : 선비[士]가 거쳐해야 할 곳은 인(仁)이며,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의(義)이다. 인에 거쳐하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다.

- ① 언어[言]로 도에 이를 수 있고 인위로 인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 ②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누구나 따라야 할 도가 존재하는가?
- ③ 도를 행하면 분별적 지식이 늘어나고 타고난 덕성이 함양되는가?
- ④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 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禮)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가?

8. 한국과 동양의 윤리 사상

한국의 전통 윤리 사상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한국 윤리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한 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근대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농촌 경제의 파탄과 국가 재정의 위기,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성리학을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비판하면서 도덕의 실천과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학(實學)이 등장하였다. 실학은 17세기 중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18세기에 접어들어 성호학파와 북학파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리학과 구분되는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도덕관을 제시하였다. 실학자들 중 일부는 성리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도덕과 결부된 대상이 아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은 도덕규범과 실천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실학자들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고, 나아가서는 도덕규범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제정될 수도 있다는 도덕관을 제시하였다. 이는 천리(天理)를 도덕규범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던 성리학자들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실학자들은 우리의 역사, 지리, 문화, 군사, 언어, 풍속 등에 대한 독자적 탐구를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중국 중심의 화이관에서 벗어난 자주적 학문의 개척이었다.

이러한 실학의 정신은 경제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근대 지향적인 개혁 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토지 개혁, 상공업 진흥, 신분제 개혁 등 진일보한 민본주의적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개화사상가들에게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양명학은 한동안 주요 성리학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양명학적 흐름을 주도한 정계두(鄭齊斗, 1649~1736)는 왕수인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이룸으로써 강화학파(江華學派)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

정계두의 학문을 계승한 강화학파는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 성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참된 자아에 대한 각성과 생활 속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특히 인식 주체로서의 '나'가 바로 도덕 문제의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참다운 마음의 이치를 알고 이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도교와 불교까지 수용하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하였으며, 실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의 자주성을 주장한 강화학파 학자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들의 정신과 사상은 국학 진흥에 힘썼던 정인보(鄭黃普, 1893~1950) 등에게로 이어졌으며 여러 민족주의 학자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실학자들과 강화학파의 사상가들은 실천 지향적이고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몰락한 양반의 후예이거나 말단 관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사상이 현실에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세기 조선은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과 민란(民亂)이 끊이지 않았으며, 서양 문물의 유입과 서양의 통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통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의 사상가들은 한국 전통 윤리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거나 서양 학문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서구 열강의 침략 상황에서 유교적 인륜과 의리 정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이항로와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들 수 있다. 이항로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위정척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기정진 역시 상소문을 통해 “그들이 가진 끝없는 탐욕은 우리의 백성을 금수(食獸)와 같이 만들 것입니다. 만약 통상의 길이 한번 열리면 2, 3년 안에 서양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정척사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의식과 절의를 강조하는 선비 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훗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개화사상(開化思想)**은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던 사상이다. 개화사상은 유교적 질서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급진적 개화론과 온건적 개화론으로 나누어 진다.

**급진적 개화론**은 전제 군주제와 신분 질서로 대표되는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급진적 개화론자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도리를 부여받았다고 보고, 그것은 생명을 보전하며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주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건적 개화론**은 유교적 질서 [東道]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 기술 [西器]을 수용하자는 주장으로서,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이라고도 한다. 온건적 개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하여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라는 주장에 잘 담겨 있다.

개화사상은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사회 개혁을 도모하는 근대 지향적인 사상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東學)**은 봉건 체제가 동요하고 천주교가 확산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다. 동학은 **보국안민**을 목표로 경천(敬天) 사상의 바탕 위에 유, 불, 도 사상을 융합하여 성립하였다.

동학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인간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학에서 제시한 ‘내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侍天主]’,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吾心即汝心]’,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 [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 [人乃天]이다.’ 등의 가르침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동학에서는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여, 신분 차별이 사라진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 사회가 현재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다. 동학의 사상은 훗날 신문화 운동과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 시기 성립한 또 다른 근대 신흥 종교인 증산교와 원불교 역시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대 신흥 종교들은 궁핍과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을 제공하였다.

조선 후기로부터 근대 격변기에 등장한 다양한 사상과 개혁 방안은 대부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의식과 국권 수호 정신으로 승화되어 민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 변명과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동양의 다양한 윤리 사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상은 오늘날 도덕성의 상실, 횡금 만능주의의 팽배, 사회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 앞에 놓인 현대인에게 많은 윤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 보살, 지인은 모두 초월적 존재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다. 따라서 우리도 부단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 실현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신적,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군자,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지인, 진인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나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군자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과 보살의 자비심, 지인, 진인의 만물제동을 실천하는 삶은 모두 생명 존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지향하도록 돕는다. 군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며, 보살은 중도(中道)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인, 진인의 삶 역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

같등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조화로운 삶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처럼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은 자아를 완성하고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과 가치의 원천을 제공한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겨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양이(洋夷)들이 사학(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양적(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해야 한다.

을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하늘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 < 보 기 > —
- ㄱ. 갑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의 수용을 주장한다.
  - ㄴ. 갑은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器)가 둘이 아님을 주장한다.
  - ㄷ. 을은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 만민 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효제(孝悌) 정신의 계승과 국난의 극복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冤)과 한(恨)이 쌓여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우겠다.

을 :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 보 기 > —
- ㄱ.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冤)을 강조한다.
  - ㄴ.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혁(開闢)을 강조한다.
  - ㄷ. 을은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 ㄹ. 갑, 을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도덕을 혼련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모든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을 :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입도식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고 깊이 맹세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의혹을 깨뜨려 없애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 ① 갑은 불교 개혁을 통해 불법(佛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 ② 갑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을은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 ④ 을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갑, 을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3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혼란한 세상을 구하려면 이단(異端)을 먼저 물리쳐야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학(正學)을 밝혀야 하며, 정학을 밝히려면 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한다.

을 : 우리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런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병 : 동양인은 형이상의 도(道)에 밝고 서양인은 형이하의 기(器)에 밝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 ① 갑은 성리학적 의리 사상을 내세워 서학(西學)을 반대하였다.
- ② 을은 인간 존중과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 ③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갑, 을은 외세 배척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 ⑤ 갑, 병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36.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이(理)는 지극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實)하다. 그 본체는 무위(無爲)하지만 작용[用]을 갖추고 있어 만물에 드러난다. 술개가 나는 것은 기(氣)이지만, 날게 하는 것은 이(理)의 묘용(妙用) 아님이 없다.

을: 이는 형이상자(形而上者), 기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이는 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고, 기는 이 아니면 근거가 없다.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오직 기가 발함에 이가 타고, 이는 통(通)하지만 기는 국한[局]된다.

병: 이는 마음[心]이고 성(性)이다.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사람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는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양지(良知)이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 ① 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 ② 을은 이가 기와 결합해야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진리(眞理)를 마음이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이치로 본다.
- ④ 갑과 을은 치우친 기질 속에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 ⑤ 을과 병은 기가 이보다 먼저 발하여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37.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한다.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이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呪文)을 외우며 한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용해야 한다.

< 보 기 >

ㄱ.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ㄴ.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ㄷ.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영(靈)과 육(肉)을 온전히 해야 한다.

ㄹ.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주변에 도시 국가를 세우며 그들의 고유한 문명을 꽃피웠다. 이러한 도시 국가 중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곳이 아테네였다.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 정치를 실현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운영하였다.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민회(民會)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관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정치 참여 과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 삶과 사회에 있어 좋은 것이나 옳은 것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토론을 즐겨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과 자연의 변화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눈을 뜨고 이를 탐구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서양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증을 중시하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의 특징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관심, 행복과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좋은 것 등이 서양 윤리 사상에서 중요한 탐구 주제가 되었다. 또한 옳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윤리의 보편성 및 다양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양 윤리 사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서양 윤리 사상의 또 다른 뿌리는 헤브라이즘(Hebraism)에서 찾을 수 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 유대 민족의 유대교로부터 이후 전개된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문화 및 전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神)**에 대한 믿음이다.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율로서 제시되었다. 또 살인과 절도에 대한 금지, 부모에 대한 공경 등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이 신의 명령이자 인간 삶의 규율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훗날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양 윤리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인간과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신, 신과 인간의 관계, 이에 바탕한 인간 삶의 본질과 원리 등에 대한 탐구가 서양 윤리 사상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그 근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이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

었던 반면,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여행하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제시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다니면서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수사학 이야말로 도시 국가에서 시민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 삶에서의 세속적 성공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참된 앎**, 즉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며,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무지(無知)**에서 찾았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지덕복합일설(知德福合一說)**을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앎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문답법(산파술)**을 사용하여 참된 앎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실 사회에 순응하여 쾌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삶, 즉 자신의 영혼에 관해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란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다양하고 상대적인 도덕규범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삶은 아테네 시민들을 도덕적 성찰로 이끌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신념을 잘 보여 준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상가들이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올바른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스스로 탐구해 보아야 한다.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의 상이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옳음의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윤리적 보편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가 극단화되어 단일한 가치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를 획일화할 수 있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로부터 유래한 도덕규범의 상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쟁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는 두 입장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윤리 사상을 검토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사람에게서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을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① 갑 :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 ② 갑 :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 ⑤ 갑, 을 :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3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참되게 살려는 자는 욕구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용기와 지혜로써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절제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제와 정의를 칭송한다. 사치, 무절제, 자유가 덕이자 행복이다.

을 :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의 모든 성질들은 지혜를 동반하느냐 무지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되기 때문이다. 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 ① 갑은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신의 탁월성이 지혜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나쁜 행동이 무지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선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다.

40.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앎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교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소식을 들었다. A는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②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③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 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10. 덕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가르침을 계승하여 인간의 영혼에 있어 정의(正義)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도 탐구하여 개인과 국가 모두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이와 같은 사상은 그가 제시한 세계관 및 이에 근거한 이상적 인간과 국가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로 구분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데아(idea)**는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체로서 완전한 것이다. 반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서 변화하며 불완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노을, 아름다운 그림 등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수많은 삼각형도 모두 삼각형의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이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실체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에 의해 얻을 수 있지만,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각각의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를 **선(善)의 이데아**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참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인 부분이 욕구와 기개를 잘 다스려야하고, 욕구와 기개는 이성을 잘 따라야 한다. 따라서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플라톤은 욕구는 **절제**, 기개는 **용기**, 이성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 영혼에서 **정의(正義)**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각 개인이 타고난 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 일을 담당하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을 **생산자, 수호자(방위자), 통치자**의 세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생산자는 **절제**, 수호자는 **용기**,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절제는 모든 계급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哲人)**이라고 설명하였다. 플라톤은 이러한 세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의 덕목을 갖추고 조화롭게 국가를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완벽한 상태인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플라톤은 개인에 있어서는 인간 영혼의 각 부분이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국가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플라톤과 마

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으며,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현실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이며, **선(善, 좋음, good)**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의학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장사는 부(富)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각각의 선은 또 다른 상위의 선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의학의 목적은 병의 예방이나 치료이지만, 이는 건강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선이 보다 상위의 목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인간 행위의 최고선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행복'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며 완전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탁월성으로서의 덕(德)**을 갖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 감각이나 욕구와 같이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영양이나 성장과 같이 이성과 관련 없는 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덕(탁월성)을 **품성적인 덕과 지적인 덕**으로 구분하였다.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덕이다. 구체적으로 용기, 절제, 친절 등이 있다. 품성적인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 즉 **중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감한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중용은 산술적인 중간 상태와 다르며 각자의 상황마다 중용에 따른 선택과 행동도 달라지는데, 악덕은 중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인 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이 중용의 상태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나약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품성적인 덕을 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적인 덕**은 영혼의 순수하게 이성적인 기능이 탁월하게 작

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덕이다. 구체적으로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등이 있다.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길러지며, 품성적인 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실천적 지혜**는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현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인 품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은 **현대 덕 윤리**로 계승되었다. 현대 덕 윤리 사상가들은 특정한 도덕 원리나 규칙만을 제시하는 '행위' 중심의 윤리로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현대 덕 윤리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좋은 품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참된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윤리 사상은 데카르트, 칸트와 같이 이성을 바탕으로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는 진리를 추구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의 경험주의와 현대 덕 윤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이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덕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도 같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사상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수용되어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윤리학적 물음을 던지고 이를 이성적 논변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탐구함으로써, 서양 윤리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사상가들로 평가된다. 이들의 사상은 이후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 합리성에 바탕한 더욱 풍성한 논의를 펼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41.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침과 굶중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4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욕구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가질 수 있다.
-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을 :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 용기라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①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② 갑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삶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45.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브나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브나(mna) :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 < 보 기 > —
-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B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을 :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며, 인간 본성에 따라 나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① 갑 :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갑 :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③ 을 :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 ④ 을 :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 주는 품성적 덕이다.
- ⑤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11. 행복 추구의 방법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주요한 탐구 주제로 삼았다. 이들은 주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그리스인이 겪은 시대적인 혼란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도시 국가(polis)가 해체되었다.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공동체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제국의 신민(臣民)으로 전락한 이후 정치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연대감마저 상실하였다.

더욱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전쟁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더 나은 국가의 실현보다는 어떻게 해야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의 사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감함을 불러 일으키며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다.

**에피쿠로스학과**는 이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전제하고,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쾌락주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식욕이나 성욕 등의 충족과 같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은 순간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이른바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쾌감을 탐닉하도록 부추겨 결국 고통을 안겨 준다. 즉 무분별한 욕구의 충족이나 사치, 향락 등으로부터 주어지는 쾌락은 더 높은 강도의 더 많은 고통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상태가 **평정심(平靜心)**, 즉 **아타락시아(ataraxia)** 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의 상태를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욕망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우주, 신,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

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격으로 맺은 인간관계가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공격적인 삶을 멀리하는 대신 사적인 공간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정답스럽게 사는 삶을 권장하였다.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며,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는 근대의 경험론과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점은 근대의 경험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점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로 계승되었다. 특히 쾌락을 구분했던 점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한 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학파**는 기원전 3세기 초, 그리스 사상이 제논이 창시하였다. 이후 스토아학파는 에픽테토스와 같은 노예 출신부터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상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스토아학파의 주된 관심은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얻는 데 있었다.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평온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부동심(不動心)**, 즉 **아파테이아(apatheia)**라고 한다.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욕망, 공분, 쾌감, 슬픔 등과 같은 비자연적인 정념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행위로 이끈다. 물론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등 자연적인 정념도 있지만, 스토아학파는 평온한 삶을 위해 이러한 정념에 대해서도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욕망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금욕주의**라고 불린다.

스토아학파는 정념에서 벗어나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성에 따른 삶**을 제시하였다.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이성(logos)**은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으로 신, 자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에 따른 삶이란 자연의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자 신의 섭리와 예정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신에 의해 운명 지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의 몸이나 소유물, 지위 등 외적 조건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지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 마음과 관련된 것뿐이다.

이처럼 스토아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토아학파는 자연법 사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을 의미한다. 이성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인간

에게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만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의무'라고 하였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 친구, 동료 시민, 나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제시하였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이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스토아학파는 각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 서양의 윤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 것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성에 부합하는 삶과 의무에 대한 강조는 칸트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세계 시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류애에 대한 강조는 로마의 만민법으로 계승되었으며, 자연법 사상은 중세의 아퀴나스와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에게로 이어졌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부와 명예 등 외적인 조건에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공격적인 일을 멀리한 반면 스토아학파는 금욕적 생활과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에피쿠로스학파는 개인적 쾌락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고 사적인 생활만 중시함으로써 이타적인 공공생활을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인간의 의지와 정서의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의 사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먼저 욕망의 절제를 통한 행복의 추구는 물질과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또한 평정심과 부동심의 추구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향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내적 평온을 통한 행복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47.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을 :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려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 ① 갑 :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② 갑 :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을 :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④ 을 :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48.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욕망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성의 힘으로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을 :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 헛된 생각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갑은 덕을 갖추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의 우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곧 쾌락임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덕이 쾌락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49.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너와는 관계없으며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을 :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두를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 보 기 >

ㄱ. 갑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심신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정치 참여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0.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쾌락에 따라 택하거나 피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상태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

을 :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념에 이끌리지 말고 자연의 섭리인 이성애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 ① 갑 : 이성적인 인식을 통하여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을 :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을 :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며 사는 삶을 중시해야 한다.

51.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ㄴ. 갑 :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ㄷ. 을 :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ㄹ. 갑, 을 :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2.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본성과 운명에 따라 할 일을 정해야 욕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덕을 따를 수 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을 검토해야 한다.

을 : 본성에 심어진 일차적 선은 쾌락이다. 그런데 쾌락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득과 실이 되는지를 측정,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① 갑 :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 불굴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 쾌락을 누리려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 ④ 을 :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욕망과 쾌락도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 을 :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해야 한다.

12. 신앙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성립된 종교로서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교는 야훼(Yahweh)를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으며, 메시아(Messiah)의 도래와 지상 천국의 건설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이다.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한 **예수**(Jesus, B.C. 4?~A.D. 30?)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유대교의 신앙은 유대인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신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수는 유대교의 신앙이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얽매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율법의 참된 정신은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산상 수훈을 통해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교하였다.

산상 수훈에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다. 그중 이웃 관계와 관련하여 예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차별 없는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예수는 인류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사랑, 즉 아가페(agape)를 받았으므로 이웃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예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보편 윤리로서의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율법적 의무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며, 마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예수가 강조한 사랑의 윤리와 보편 윤리는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통일된 교리를 갖추지 못했으며, 다신교가 지배적이었던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등이 고대 그리스 사상을 수용하여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이후 그리스도교는 점차 세계 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중세의 **교부**에 의해 확립되었다.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사랑의 윤리를 체계화하였다.

플라톤은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이 강조한 절제, 용기, 정의, 지혜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원죄**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므로,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를 설명 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 등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 사상을 정립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 사상은 고대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에 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부 철학의 뒤를 이어 중세 후기에 스킨라 철학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스킨라 철학자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으며,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완전한 행복이란 내세에 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성적 활동을 통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 아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을 실천하여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아퀴나스는 행복 실현에 있어서 신앙을 중시하였지만 이성 또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자연법 사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의 영원한 법칙인 영원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다.

이러한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고 정당화된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에 의해 인식된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듯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정법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그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스킨라 철학은 신앙 중심이었던 교부 철학에 비해 이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신앙과 이성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결국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로 귀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다. 스킨라 철학의 이러한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에서도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근대 윤리 사상이 싹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으로 현세에서의 삶을 더욱 중시하는 특색을 띠게 되었다. 종교 개혁은 루터(Luther, M., 1483~1546)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는 참된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으며,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의 권위와 부패를 비판하였다. 이후 칼뱅(Calvin, J., 1509~1564)은 구원이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또한 그는 직업이 소명이자 이 땅에서 신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이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신의 은총에 의한 영원한 행복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한다. 또한 사랑에 기초한 윤리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교의 자연법은 천부 인권을 강조한 근대의 자연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 성별, 빈부, 인종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3. 중세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 ① 갑 :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갑 :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 ③ 을 :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 ④ 을 :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 ⑤ 갑, 을 :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5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을 : 신은 최고 존재이며, 무(無)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본다.
- ④ 을은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 지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55.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한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만든 만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 < 보 기 > —

ㄱ.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ㄷ.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ㄹ.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만으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6.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고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 ② 자연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다.
- ③ 신의 의지인 영원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도 불변한다.
-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 ⑤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57.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을 :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① 갑 :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 ② 갑 :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③ 을 :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 ④ 을 :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13. 도덕의 기초

서양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자연 과학의 발달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었다. 근대에는 중세의 신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경험이 중시되었고, 인간을 사고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근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파악하거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이 아닌 인간에서 찾았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사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근대에는 지식을 찾기 위한 토대와 방법을 탐색하였는데, 지식과 사유의 토대가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합리론**이라고 한다. 합리론은 수학적 논리와 추론에 의해 얻은 지식을 중시하였고, 확실한 원리로부터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얻어 내는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합리론의 기초를 닦은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다. 그는 이성적 추론의 토대가 되는 확실한 원리를 찾기 위하여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그 결과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심)하는 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아 확실한 지식을 연역하고자 하였다.

근대의 합리론 사상가들은 도덕적인 삶의 근거, 즉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두면서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성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정이나 욕구를 다스리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이성 중심의 윤리 사상가인 **스피노자**는 이성적인 삶을 지향하였으며, 자연을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그로부터 필연적인 질서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법칙에 따라 살고 있고, 자연의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만물은 인과적 질서 속에서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여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 기쁨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을 느끼고, 반대로 자기 보존을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을 느낀다. 스피노자는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만약 슬픔, 마음의 동요, 불안 등과 같은 정념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 하게 되면 정념에 예속된다. 스피노자는 정념에 예속된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온갖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행복이며 최고선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선(善)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도 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는 이성을 강조하고 정념에 예속되는 삶을 경계하였다. 그렇다고 감정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근대의 합리론은 자아의 이성 능력을 강조한 데카르트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주장한 스피노자를 거쳐, 이성적 판단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이끌어 내곤 했던 칸트 윤리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에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에서 찾는 입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경험론**이라고 한다. 경험론은 사유와 지식의 원천을 감각적 경험에 두고,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지식을 중시하였다. 또한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얻어 내는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경험론의 선구자인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아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인간이 지닌 선입관과 편견을 **우상(偶像)**이라고 칭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여 얻어 낸 올바른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근대의 경험론 사상가들은 도덕적 삶의 근거를 인간의 경험적인 요소에서 찾았다. 이들은 타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두면서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가인 **훔**은 도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인데,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훔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며, 이성은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다.

또한 훔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면 좋은 것 [善]으로, **부인(否認)**의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 준다면 나쁜 것 [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훔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흠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애감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흠은 이성에 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우려했을 뿐이지 이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사용해야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밝히고, 이성은 감정을 위한 도구적 역할에 한정하려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중시하는 근대 경험론의 전통은 베이컨을 거쳐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한 흠으로 이어졌다. 사회의 행복에 유용한 행위를 강조한 흠의 윤리 사상은 공리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 또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의 관점은 실용주의 윤리 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58. 중세 서양 사상이 감,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 :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을 :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 ① 감 :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 ② 감 :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 ③ 을 :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④ 을 :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감, 을 :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59. 근대 서양 사상이 감,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 :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을 :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감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 ② 감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감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60. 근대 서양 사상이 감,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감 :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을 :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 형식 논리학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

- ① 감 :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 ② 감 :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
- ③ 을 :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
- ④ 을 :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 ⑤ 감, 을 :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61.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을 :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해서이다. 도덕적 선악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 ① 갑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62. 갑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사람이 어떤 상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감소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을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 ①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 ② 자연법칙에 관한 삶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 ③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 ④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 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압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14. 옳고 그름의 기준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의무론**이라고 한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 산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또한 의무론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무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실천 이성이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선의지를 저절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정언 명령은 ‘무조건 OO하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을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와 같은 정식(定式)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칸트에 따르면 욕구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는 고귀하며,

이러한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인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칸트의 윤리 사상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나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무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칸트 윤리 사상은 도덕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정언 명령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서양 윤리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칸트의 윤리 사상은 현대로도 이어졌다. 그리하여 칸트 윤리 사상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그 사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현대 칸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로스**이다. 그는 칸트 윤리 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하면서도 한계로 지적되는 정언 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의무(prima facie duty)를 제시하였다.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와 달리 한번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로 ‘직견(直見)적 의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의무들이 여기에 속한다.

조건부 의무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만약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무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된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의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의무에 의해 미루어진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 칸트주의는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칸트 윤리 사상을 계승한 현대 칸트주의는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흔들리지 않는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칸트주의는 인권 사상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윤리 사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한다.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결과론은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경험론을 계승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공리주의를 체계화한 벤담과 그의 제자인 밀의 윤리 사상을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 준다. 즉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功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리란 유용성을 의미하며, 벤담이 말하는 유용성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사회적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결과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는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밀**은 벤담의 윤리 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쾌락, 즉 행복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보다 훨씬 우월하다.

또한 밀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한 쾌락임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밀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포함된다고 보고,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다른 사

람의 쾌락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밀은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한 쾌락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소수자의 인권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오늘날 현대 공리주의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고전적 공리주의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현대 공리주의로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선호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는 달리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인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을 설명한다. 즉 선호 공리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 주는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선호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감각을 지닌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개체가 자신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은 각 개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인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역직관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진실을 말하라.' 혹은 '해를 끼치지 마라.'와 같은 어떤 행위의 규칙이 공리의 원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면, 각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 확실히 경제적이다. 또한 채택된 규칙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과 상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현대 공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감각을 지닌 동물의 행복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공리주의는 실천 윤리학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공리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행위 규칙을 도출하여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사회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6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6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더라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  
을 :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 ① 갑 :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 무조건적 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 ③ 을 :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 ④ 을 : 고급 쾌락들을 경험한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갑, 을 : 행위자의 품성을 배제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다.

65.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을 :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 ① 갑 :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② 갑 :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 ③ 을 : 실천 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 ④ 을 :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 ⑤ 갑, 을 :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66. 다음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이념을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67. 갑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 을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②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 ③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 ④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 ⑤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68.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과 현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① 갑 :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 ④ 을 :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현대의 윤리적 삶

19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들이 등장하였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존주의이다. 여기에서 실존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주체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실존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이성주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사회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비인간화 및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실존주의이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끝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실존** 단계이다. 그러나 심미적 개인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절망하게 된다. 이 절망으로 인해 개인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실존**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고 보편적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안정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된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느낀 개인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실존**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유용성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이데거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고 **“실존**

**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컵과 같은 사물은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실제 컵이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별성을 강조하여 자칫 보편적 도덕규범을 부정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실존주의는 현대인의 삶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실존주의는 현대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한다. 실존주의는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는 오늘날 개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인간 소외와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 '실천' 등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프라그마(pmgma)에서 유래한 **실용주의(Pragmatism)**는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척정신과 실험 정신을 담고 있다.

실용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전개하였다.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하면 지식과 도덕도 새롭게 정의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퍼스에서 비롯되어 제임스와 듀이를 거쳐 크게 발전하였다.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퍼스**는 실용주의의 격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용주의의 격률**이란 어떤 것이 옳으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제임스**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신념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식과 신념은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이에 그는 이롭다는 것과 옳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퍼스와 제임스를 계승한 **듀이**는 실용주의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지식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도구주의**라고 불렀다.

도구주의 입장에서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간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에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변하는 고정적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 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실용주의는 보편적인 도덕을 부정하여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진다거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자칫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현대인의 삶에 몇 가지 윤리적 시사점을 준다.

먼저 실용주의는 지성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덕적 가치 판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성적인 방식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도덕의 진보와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실용주의는 다원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는 실용주의 태도는 가치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관용적 태도와 연결되어 다양한 가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한다.

6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의 본성은 없다.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을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

- ① 갑 :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② 갑 :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③ 을 :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 ④ 을 :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

7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정신이며, 정신은 곧 자아이다. 자아는 자기와 맺는 관계이며, 이런 관계는 무한과 유한의 종합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각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을 : 인간의 실존은 그의 본질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투쟁, 고통, 죽음, 죄에 대한 책임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그 상황에서 좌절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로 나아갈 때 참된 실존에 도달한다.

- ① 갑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객관적인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윤리적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참된 실존을 찾으려면 타자와의 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초월자와 단절해야 인간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71.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인간은 말이나 소와 다르게 정신 안에 이성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이다.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의 본질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 인간은 이끼나 꽃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나중에는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 ① 갑 : 인간은 목적 지향적 활동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갑 : 지나침과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다.
- ③ 을 : 인간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 ⑤ 갑, 을 :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72.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을 :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 ① 갑 :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 ② 갑 :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 ③ 을 :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④ 을 :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73.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을 :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 ①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임을 모르고 있다.
- ④ 행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

74.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로서 개별자인 나 자신이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한 개별자인 내가 절대자인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을 : 진리를 유용성으로 보는 것을 특정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용성이 노상 강도의 이익에 의해 측정될 수는 없다. 그 가치는 도로로서의 효용성과 그 실제 기능 여부에 의해 측정된다.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유용성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갑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실존의 문제는 오직 주체적 결단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 16. 사회 사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사회는 인간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사상이 형성되었다.

**사회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와 해석을 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대에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사상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사상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사상은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된 더 나은 사회의 모습도 제시한다. 공자는 인의(仁義)의 정치가 구현된 사회를 추구하였고,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사회사상은 타락한 정치 공동체를 개혁하여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상 사회를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상 사회**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이상 사회는 인류가 끊임 없이 꿈꾸어 왔으나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이상 사회는 현실을 개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과 목표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상 사회는 인간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실천 의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사상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과 실현 방법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상 사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예로부터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현실 사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상 사회를 제시해 왔다. 다양한 이상 사회가 제시된 이유는 사상가들이 파악한 현실 사회의 모순과 부패가 제각각이었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습도 달랐기 때문이다.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 사회로는 공자의 대동 사회(大同社會)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를 들 수 있다.

**대동 사회**는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로 풍요롭고 화평한 세상을 말한다. 공자가 제시한 대동 사회는 누구나 현명하고 유능하다면 등용되는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또한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이며, 자기 부모나 자식을 구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공동체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된 사회로 **소국과민 사회**를 제시하였다. 소국과민 사회는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이다. 이곳의 백성은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소

박한 삶을 산다. 또한 이들은 온갖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과 같은 무위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소국과민 사회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이다.

한편 서양의 이상 사회로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모어의 유토피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를 들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의 이데아에 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상 국가로 제시하였다.

모어는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마르크스는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도덕적 타락, 사기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 자본의 소유에 따른 차별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사유 재산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상 사회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다툼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호 간의 믿음과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공자의 대동 사회,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不爭] 겸손하게 [識虛] 사는 노자의 소국과민 사회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이상 사회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평등을 통해 사회 안정과 복지를 이루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소유와 생산에서 경제적 평등을 주장한 모어의 유토피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이상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도덕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개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인 공자의 대동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인 모어의 유토피아 등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평화로운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 사회는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되며, 나아가 현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공평한 경제 제도에 바탕을 둔

분배 정의의 실현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재화가 풍부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면 불평등이 심화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의로운 분배와 복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 재화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타인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동서양의 이상 사회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원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개인의 자아실현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75.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정의로운 국가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군인, 생산자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통치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을 :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남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 ① 갑 :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 된다.
- ② 갑 :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 ③ 을 :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재화가 분배된다.
- ④ 을 : 국가 기능의 확대를 복지가 최대한 보장된다.
- ⑤ 갑, 을 : 생산과 소유에서 절대적 평등이 실현된다.

76.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  
 을 :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

- ① 갑 : 공동으로 노동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 ② 갑 : 경제적 풍요로 인해 사회 안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③ 을 : 각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 ④ 을 : 수호자 중에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 ⑤ 갑, 을 :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이다.

77.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 < 보 기 > —  
 가. 갑 :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나. 갑 :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다. 을 :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 갑, 을 :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 17. 국가

국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되며,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집단이다.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성립 되었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동서양의 주요 입장을 살펴보자.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이다. 유교는 국가를 가족과 관련하여 이해하였으며,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를 국가의 기원이자 본질로 보았다.

공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교는 가족 윤리가 국가의 정치 원리와 서로 통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유교는 효제(孝悌)와 같은 가족 윤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부모를 섬기는 도리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는 국가 안에서 효제의 인륜을 실현하여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로 인식한 유교의 국가관은 동양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도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소피스트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가 국가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국가론을 제시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생겨난 인간 간의 결합**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자연스럽게 국가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국가는 단순한 생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실현하여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즉 그는 국가를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행복의 실현이라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로 인식하였다.

공화주의란 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생각이나 이념을 뜻한다. 공화국은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 낸 정치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 보장**이 바람직한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국가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란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인이 언제든지 노예의 삶을 간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자한 주인을 만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법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시민의 헌신과 자발적 참여라는 시민적 덕성이 잘 발휘되어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공화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에 헌신해야 한다고 본다.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의 기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동의한 계약**에 있다고 본다. 각 개인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홉스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로크는 개인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재산권, 자유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한편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지배 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본래 인류는 자급자족하며 계급이 없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살았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산력이 높아지자 사유 재산과 소유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는 계급 착취 과정에서 국가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국가를 지배 계급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 계급 갈등이 없어지고 국가는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국가 소멸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듯이, 유교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근대 이전의 사상은 국가를 도덕 공동체로 보아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에 사회 계약론이나 마르크스 등 근대 이후의 사상은 국가를 모든 개인이나 일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국가는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한 국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이 것이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유교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곧 군주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만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이 군주에게 집중되었다. 군주의 일은 민본 정치를 통해 위민(爲民)을 실현하고, 국가를 인륜이 실현되는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주는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방위력을 길러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맹자는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군주는 내쫓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공화주의는 예측되지 않을 자유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치를 보장함으로써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고, 국가를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것으로 만들 때 정당성을 얻게 된다. 반면에 국가 안에서 모든 시민이 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의에 종속될 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 계약론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국가의 정당성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본래의 목적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과 같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본가 계급을 보호하는 일에 한정되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방임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들이 기존의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각종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 자체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국가관은 앞서 제시한 동서양의 국가관과는 달리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국가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 외적의 침입과 국내의 범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속이 어렵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보험, 공적 부조,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높은 도덕성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시민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를 건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국가는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며,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고양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비로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7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을 :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 < 보 기 > —  
 ㄱ.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 < 보 기 > —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0.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① 갑 :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② 갑 :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적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 ③ 을 :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④ 을 :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⑤ 갑, 을 :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81.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 ① 갑 :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② 갑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 ③ 을 :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 ④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 ⑤ 갑, 을 :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82.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이자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목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83.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8. 시민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 사회이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를 자연권 사상에 두고 있다.

자연권 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천부 인권(天賦人權)**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홉스, 로크 등 근대의 사회 계약론자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보존이라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생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편 로크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자연권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에 대해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중세 유럽과 르네상스 시대의 절대 왕권에 대항하면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연권 사상은 영국의 명예 혁명(1688), 미국의 독립 혁명(1776), 프랑스 혁명(1789) 등과 같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지도 이념이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근대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로 확립되는데 기여하였다. 즉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지닌 문제점, 즉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시민이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공동체의 누구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가능하다. 예컨대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자는 약자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또한 법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수는 다수의 횡포에 종속될 수 있다. 즉 독재나 다수의 횡포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하여 간섭할 수 있는 권력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공화주의에서는 법이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나아가 공화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심의를 통해 구성되고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본다.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 인권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시민이 만들어 내고 향유하는 정치적, 사회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렇듯 공화주의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정당한 지배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공화주의는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이에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 그러나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의무와 공동선에 무관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정치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개인선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 그러나 공동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공화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의 개인선을 경시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아실현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이다.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할 것이다.

공화주의는 특정인의 지배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긴다. 공화주의에서 이상으로 삼는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법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며, 공화주의 또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공동체를 중시한다. 결국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선이나 공익을 경시하지 않으며, 공화주의의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또한 개인선이나 사익을 경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립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용, 애국심 등과 같은 시민적 덕성의 함양에 관심을 기울인다. 먼저 관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자신과 다른 견해나 행동을 승인하며,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한다. 이때 관용은 다른 사람의 견해나 사상, 행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이를 참거나 허용한다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유주의는 이른바 **관용의 역설**을 경계하기도 한다.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관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관용을 비지배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시민이라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본다. 나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자의적인 간섭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에서의 관용은 서로의 차이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지배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자율성 및 구성원 간의 평등을 존중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모두 애국심을 중시한다. 그러나 두 사상이 말하는 애국심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에서 애국심이란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하며, **헌법 애국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원리, 즉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반면 공화주의에서 애국심이란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자발적 사랑**(카리타스, caritas)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권력자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정치 공동체의 자유를 수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된다. 또한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치 공동체의 문화, 역사, 전통 등과 무관한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자유주의의 헌법 애국주의와도 차이가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시민적 덕성으로서의 관용과 애국심의 가치를 강조한다. 공동체의 시민은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며, 애국심을 통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가는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8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 :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 보 기 >  
 ㄱ. 갑 :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ㄷ. 을 :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5. 다음 사회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 기 >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6.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축소된다.
- ② 갑 :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를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 ③ 을 : 법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 ④ 을 : 자의적 지배가 없는 정당한 간섭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낫다.
- ⑤ 갑, 을 :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87.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유란 사적인 형태의 예측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권력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측으로 인해 자유가 부정되면 시민들은 공포에 빠진다.

(가) 을 : 자유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외부의 의도적인 강제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 < 보 기 >
- ㄱ. A : 자유를 실현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가?
  - ㄴ. B :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 ㄷ. C :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아야 하는가?
  - ㄹ. C :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민주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로 국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가 합쳐진 말로 군주제나 귀족제와 달리 국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가리킨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먼저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평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에게 공공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는 나이,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를 감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의원 등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아가 이들이 구성한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보편적인 정치 체제의 지배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이후부터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재산을 가진 남성만이 시민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노예, 외국인 등의 정치 참여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시민으로 인정받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근대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에는 근대의 사회 계약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 계약론은 절대 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데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 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계약을 맺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약을 토대로 형성된 정치 공동체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로크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한편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인간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입법자가 되는 계약을 통해서만 시민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지만,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자인 공동체 내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재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루소는 정치 공동체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인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공동선의 실현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로크와 루소로 대표되는 근대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은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지향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 원리와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헌법상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대체로 공적인 집회 장소에 시민이 직접 모여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민이 모든 사안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대에는 엘리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시민이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보다는 정치가의 지배라는 성격이 강한 정치 제도이다. 유권자의 투표가 선출된 대표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 즉 시민은 투표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며, 이후 유권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표자를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책임도 주어진다.

그런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얼마만큼 잘 대표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시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대표자들을 통해서만 표출됨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 욕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시민은 자문 위원회나 공청회, 청문회 참여, 시민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게로 확대한다. 그러나 참여한 시민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통해 시민은 자신의 선호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대표자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적절성의 문제가

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시민의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소통과 유대 등의 가치 규범을 핵심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규범적 특징은 구성원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치 공동체의 법이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형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롤스의 입장을 수용하여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전제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을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민 불복종을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한 롤스와 차이가 있다.

시민 불복종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의 원리를 따를 때 그 행위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뒤따르는 처벌을 감수하는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전제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민과의 유대를 해치는 행동이나 폭력을 수반하는 행동을해서는 안 된다.

이같이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8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정책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 결정 자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 협의, 합의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이며,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 ①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한다.
- ④ 투표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만 정책이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89. (가), (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

(나) 시민들의 선호는 변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① (가)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9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91.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 < 보 기 >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20. 자본주의

16세기 무렵 유럽 사회는 신대륙의 발견과 새로운 항로의 개척을 계기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다. 이때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티즘 등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체제의 구속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고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면, 검소, 성실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전적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애덤 스미스**이다. 그는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거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한다.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케인스**이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거대화, 무능과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수정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기업 민영화, 복지 정책의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 모두를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본주의는 신분에 따라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전통적 시장 경제와는 달리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과 사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 결과 소비와 생산, 계약 등 경제 행위

에 대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보상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급자족적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시장 경제와는 달리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허용한다. 따라서 모든 재화는 상품으로 생산되어 자신의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분위기 속에서 판매되었다.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 소유권과 자유 시장 경제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먼저 자본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여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자유 경쟁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재화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기여하였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인해 다원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계몽과 해방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여점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부를 크게 증대시켰다. 하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빈부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빈부 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 문제를 비판하며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질을 중시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물신 숭배(物神崇拜)**라고 정의하고, 노동력의 산물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이 오히려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인간 소외란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물질적 가치만을 좇으면서 인간성을 상실하

는 현상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노동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자아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였다. 즉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먼저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 경제 행위를 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경제 활동에서도 경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들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원료의 채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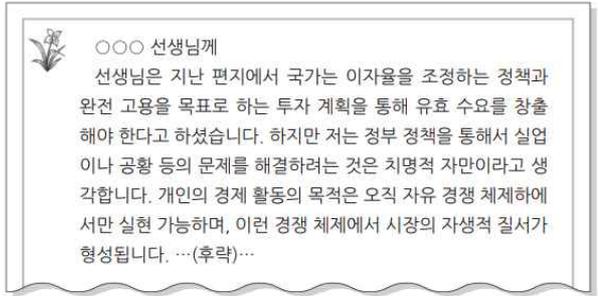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먼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상생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하여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실업과 빈곤, 재해와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경제 체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개별 국가의 시민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즉 경제적 불평등은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발생하므로 국제 사회에서의 정의 실현을 통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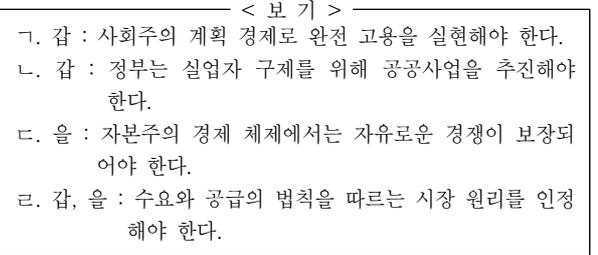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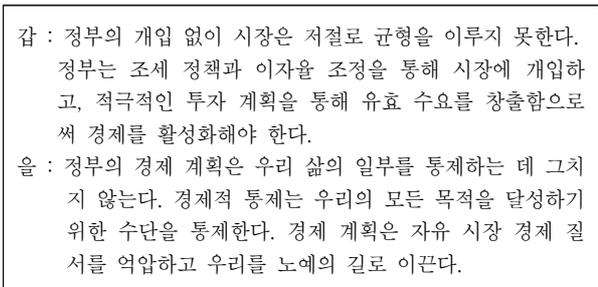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93.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 ③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④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 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9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가, 다                      ② 가, 르                      ③ 나, 르
-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르

95.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개인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자유롭게 경쟁할 때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인 낭비로 가난해지기도 한다. 공공 수입이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을 : 개인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고용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 ①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확대로 귀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시장 경제 질서의 자기 교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시장 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국가의 재분배 조치가 불황기의 효과적 대안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국가 개입 확대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을 간과하고 있다.

96.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 < 보 기 > ————

ㄱ. (가) :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ㄴ. (나) :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

ㄷ. (나) :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

ㄹ. (가), (나) :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7.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계획 경제의 틀 아래 산술적으로 균일한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인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 ⑤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98.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주의의 계획은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전체주의적 계획과 선명히 대조된다. 국가는 대규모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적 소유자도 생산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독점의 심화로 자본가들은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저항은 확대된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노동 간 모순의 격화로 수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소수에 의한 민중의 수탈이 민중에 의한 소수자의 수탈로 전환된다.

- ① 국가와 계급이 소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가?
- ②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주의가 실현되는가?
- ③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소외를 조장하는가?
- ④ 이상 사회는 무산 계급의 폭력 혁명과 독재로 실현되는가?
- ⑤ 자본주의에서 이상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실현되는가?

21. 평화

평화는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자 지향점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복지, 평등, 자유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좀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물리적 폭력의 제거에서 더 나아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양 사상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내면적, 도덕적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양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는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꿈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기이인**이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화평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이상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대동 사회**에 잘 나타나 있다. 대동 사회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사회이다.

목가의 창시자인 목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이 존비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으로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목자는 보편적 인류애를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하였다.

목자는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겸애(兼愛)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겸애**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목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우를 나누어야 전쟁과 같은 불의(不義)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목자는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비공(非攻)**, 즉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은 나라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害)를 제거해야 하므로 통치자는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교에서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평화 실현을 위해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양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貪], 화냄[瞋], 어리석음[癡]을 제거하고 **연기**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은 무차별적 사랑인 **자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기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불교의 **생명 존중**의 평화 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생명을 훼손하는 폭력을 거부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 정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여 통치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동양 사상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도덕성과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양의 평화 사상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

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서양의 이상은 근대의 에라스무스, 생피에르, 칸트 등과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사상가인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비폭력의 평화 사상을 계승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는 정전론(正戰論)의 입장에서 악을 징벌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 실현을 위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은 본성상 선보다 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쟁에서는 악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겪기 때문에 죄 없는 다수가 혹독한 제앙에 휘말리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의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전쟁을 위한 무기 구매, 용병(傭兵)의 모집 등에 드는 비용, 전쟁에 의한 파괴와 통상의 단절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전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보았다.

**생피에르**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나 도덕성에 호소하는 대신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적 이성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생피에르는 전쟁이란 인간의 이기심이 대립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무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전쟁이 비록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지만, 오히려 이기심을 이용하면 평화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군주에게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여 평화가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군주 스스로 평화를 지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생피에르는 이 같은 공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주들의 연합에서 각국은 주권을 존중받고 영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해 해결한다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전쟁이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영구 평화론』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맹의 창설과 세계 시민법의 조건 등을 담은 확정 조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연맹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칸트는 국가 간의 교류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주권 국가의 존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가 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의 평화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류의 염원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을 중시하고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에서 발전해 온 사상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지역 또는 국민 국가 중심의 사고나 태도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은 국가 간, 사람들 간의 관계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엮여 있는 지구촌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닐까?

첫째, 세계 시민주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기아와 난민 발생, 인권 침해, 생태계 파괴,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등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소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여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인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세계 시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류는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셋째, 세계 시민주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타인과 타국을 자신과 자국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갈등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기도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식량이나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 윤리**에 기초한 지구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인구 감소 정책이나 식량 분배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외 원조를 제안한다. 해외 원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국제주의나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 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세계 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롤스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선에 두고 있지만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전 지구인의 복지 향상에 두고 있다. 하지만 롤스와 싱어 모두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구촌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10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10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 차별과 같은 간접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을 : 전쟁은 항상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전쟁의 정당성은 개시, 수행, 종식 등의 전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① 갑 :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 ② 갑 :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를 통해 완성된다.
- ③ 을 :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 평화를 위한 정의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102.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을 :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타인의 삶과 행복을 명목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병 :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해외 원조를 최소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 의무라고 본다.
- ③ 병은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자원 빈곤국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갑, 병은 국제 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국가 간 부의 격차 해소 후에는 원조 의무가 없다고 본다.

10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보 기 >

ㄱ. 갑 :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ㄴ. 갑 :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ㄷ. 을 :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ㄹ. 갑, 을 :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④	2	④	3	①	4	②	5	①
6	①	7	①	8	④	9	②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④	20	①
21	①	22	②	23	⑤	24	⑤	25	⑤
26	②	27	⑤	28	④	29	④	30	①
31	⑤	32	③	33	⑤	34	④	35	④
36	⑤	37	①	38	①	39	③	40	②
41	④	42	①	43	②	44	③	45	③
46	⑤	47	③	48	④	49	④	50	②
51	②	52	③	53	②	54	③	55	②
56	⑤	57	②	58	⑤	59	③	60	①
61	④	62	⑤	63	④	64	②	65	③
66	③	67	②	68	①	69	①	70	⑤
71	③	72	②	73	②	74	⑤	75	①
76	④	77	①	78	①	79	②	80	③
81	⑤	82	④	83	②	84	②	85	③
86	③	87	⑤	88	①	89	④	90	③
91	①	92	②	93	②	94	⑤	95	⑤
96	④	97	①	98	①	99	③	100	③
101	①	102	③	103	①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